

##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 경향에 따른 사이버 범죄인식의 차이

The Differences of University Student of Cyber Crime Recognition according to Internet Addiction Tendency

김정규  
남부대학교

Kim jung-gyu  
Nambu Univ.

### 요약

본고는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따른 사이버 범죄의 인식정도를 규명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첫째, 남녀대학생간에는 인터넷 중독정도의 평균적 차이가 존재하였다. 남학생의 중독성이 여학생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인터넷 중독집단이 일반사용 집단에 비해 사이버 범죄를 평균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터넷 활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을 많이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인터넷 중독현상에 따른 사이버 범죄의 인식을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생활장애와 관련된 중독성과 일탈행동적 중독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범죄의 인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중독현상들은 예측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 the casual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cyber crime's recognition of university student. This study summarize three results. First, male student Internet addiction was higher than female student. Second, it was analyzed that internet addiction group recognizes cyber crime averagely higher than general use group. It is understood that according as internet practical use time increases, they recognize much danger that exposed cyber crimie. Third, cyber criminal recognition by internet addiction did multiplex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Internet addiction was analyzed that cyber crime recognition increases according as increasing of addiction level that connected with usually life difficulty and deviation behavior.

## I. 서론

오늘날 컴퓨터는 인터넷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컴퓨터의 기능성은 성능보다 인터넷과의 연결여부 또는 연결망의 종류에 의해 결정된다. 출발은 인터넷이 컴퓨터 보다 늦었다. 최초의 컴퓨터는 1946년 에니악(ENIAC)이었고 인터넷은 1969년 미 국방부에서 개발한 아파넷(ARPAnet)이 효시이다. 무려 23년이나 차이가 난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인터넷이 컴퓨터를 완벽하게 이끌고 있다.

인터넷은 사회구조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고 일상생활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소위, 디지털 혁명도 그 원천은 인터넷이다. 인터넷이 핵심 인프라로 자리하게 되면서 다양한 현상들을 파생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을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면 장점과 단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부정적인 현상들의 발생은 기술적 진보에 뒤쳐진 법제도적 흡결의 탓일 수도 있으나 보다 중요한 원인은 새로운 문화가

미정립된 상태에서 겪게 된 사이버 스페이스 상의 무규범적 이데올로기에서 찾을 수 있다.

사이버 스페이스의 무규범적 행태는 사이버 자체의 특징에 기인한다. 이른바, 시공초월성, 무제약성, 익명성 등으로 대표되는 특성들이 일탈적 사이버 활동과 사이버 범죄를 조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범죄학적으로 접근하면 사이버범죄의 원인은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과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ies)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두 개의 이론을 종합하면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범죄자의 기대효용 증가와 사이버 공간에 머무는 사람의 폭중에 따른 범죄자와 피해자간 직접 접촉의 용이성으로 발생 및 증가된다고 설명된다. 인터넷 사용시간 증가 자체가 사이버 범죄피해와 가해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인터넷 사용시간의 증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독현상이 그것이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긴장된 학업활동과 미성숙한 정서 등으로 인터넷 중독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대학생은 청소년기를 탈피하

지 못한 불안진 독립체라는 인구계층적 특성과 일정한 통제에서 벗어난 해방기적 상황으로 인해 인터넷 중독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대학생의 인터넷 활용 능력은 전체 인터넷 사용자 집단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2005 국가정보보호백서에 따르면 사이버범죄자의 가장 높은 비율은 20대이고 신분은 학생으로 분석되었는데 결국 사이버 범죄의 많은 부분이 대학생에 의해 발생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 다른 문제는 사이버 범죄를 전통적 범죄와 같은 수준의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민식(2000)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행위는 실공간에 비해 범죄성이 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사이버 범죄의 증가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따른 사이버 범죄의 인식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적 연구가설은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따라 사이버 범죄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이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2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범죄를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3장에서 연구의 방법을 소개하며 4장에서 분석결과를 소개하고 5장에서 요약 및 시사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인터넷 중독

우리는 주위에서 중독이란 용어를 빈번하게 접하고 있다. 마약중독, 일중독, 운동중독 등 이 그 예이다. 단어에 중독이란 용어가 접미하면 부정적 의미로 방향이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중독이란 약물이나 알콜 등의 물질과 관련한 신체적 또는 심리적 의존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정상적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중독이란 체내로 직접 주입되는 물리적인 것들만으로 유발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10여년 전부터 심리적인 중독도 가능하다는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어 왔다. 심리적 중독과 관련한 선행연구들 중에서 ‘인터넷 중독’은 가장 활발하게 연구된 테마 중 하나였다.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는 골드버그(Goldberg)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었다. 그는 ‘인터넷 중독 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란 병리적이고 강박적인 인터넷 사용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1] 골드버그는 인터넷 중독장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년 이내에 아래의 증상 중 세 가지 이상이 나타날 경우라고 주장한다. 첫째, 만족에 도달하는 인터넷 사용시간의 급속한 증가 또는 전과 동일한 시간을 이용하였을 경우 효과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이다. 둘째, 인터넷 사용을 중단했을 때 정신적 불안, 근심,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집착, 인터넷적 환상,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인 타이핑 행위를 나타내는 현상들이 나타날 경우이다. 셋째, 의도한 것보다 더 종종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할 때이다. 넷째,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여도 실패하는 경우이다. 다섯째는 인터넷 이용에 과도한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여섯째는 인터넷 이용으로 인해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또는 여가활동 등을 포기하거나 줄이는 경우이다. 끝으로 인터넷 사용에 의해 생기거나 또는 악화될 수 있는 육체적, 사회적, 직업적, 혹은 심리적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인터넷 사용을 계속하는 경우이다.[2]

최근에 그는 ‘병리적 컴퓨터 사용(Pathological Computer Use)’이라는 용어로 중독장애를 대체하였다. 인터넷 사용을 하나의 독립된 중독 장애로 간주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가 이를 과도한 컴퓨터의 사용의 일종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다소 수정한 것이다.[3]

지금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 진단은 Young(1996)에 의해서 개발된 것이다. 그는 병적도박(Pathological Gambling)의 척도를 수정하여 병적 인터넷 사용(Pathological Internet Use)자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 중독현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서 성적불량, 부부사이의 불화, 업무능력저하와 같은 특성들을 밝혀내었다.[4]

에거(Egger)는 스스로 인터넷에 중독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경험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을 때 불안하며, 인터넷 이용에 대해 허언하고, 직장문제 및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5]

스텐퍼드대학의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인터넷에 접속한 이용자들이 가족 또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상당부분 줄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인터넷의 이용이 개인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있다는 것이다.[6]

인터넷 중독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고, 학교 및 가정생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청소년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7] 진선에 등(2006)의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자 중 54.7%가 중독군으로 분류되어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인터넷 중독의 부정적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다. 서승연·이영호(2007)는 대학생원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 보다는 남성이 위험과 중독 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고 일상적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 그리고 몰두 성향과 인터넷 중독 사이에 정적 상관관이 발견되었다.[8] 김진희·김경신(2006)의 연구에서는 서

울, 광주, 전남 지역 대학생 5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터넷 중독수준은 비중독 20.7%, 초기중독 7%, 심각한 중독 4.8%로 나타났다. 초기중독은 여학생이 높았고 심각한 중독은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은 인터넷을 상용하면서 가족들과 불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9] 송명준·권정혜(2000)는 인터넷의 중독적인 사용과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중독자들은 전반적으로 대학생활에서 적응력이 낮고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10]

## 2.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식

사이버범죄는 컴퓨터범죄, 인터넷범죄, 정보통신범죄, 하이테크범죄 등의 용어들로 혼용되어 왔다. 이상의 용어들은 사이버 상에 발생한 범죄행위를 특징적으로 명명한 것들로 학문적으로 확립된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이 중에서 사이버범죄라는 용어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의미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 일체를 뜻한다.

사이버범죄의 분류는 연구자 또는 관련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네트워크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즉 전통적인 범죄에 컴퓨터와 인터넷 등이 이용되어 사이버스페이스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로 대별된다. 네트워크를 침해하는 사이버범죄는 정보침해, 사이버테러, 사이버 절도 등이 있고, 네트워크를 침해하지 않는 사이버범죄는 사이버음란정보, 컴퓨터프로그램의 불법복제와 유통, 사이버 명예훼손, 스팸메일 유포 등이 있다.[11]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이버 범죄의 현황은 <표 1>과 같다. 건수는 그간 빠르게 상승하여 왔으며 2006년에 처음으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1] 우리나라 사이버 범죄 발생현황[12]

구분	계	사이버테러형범죄 (해킹, 바이러스유포메일폭탄, DOS공격 등 전자기적 침해장비를 이용한 컴퓨터시스템과 정보통신망 공격 행위)	일반사이버범죄 (사이버도박, 사이버스토킹, 성폭력, 사이버명예훼손, 협박,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유출등의 행위)
2006	82,186	20,186	62,000
2005	88,731	21,389	67,342
2004	77,099	15,390	61,709
2003	68,445	14,241	54,204
2002	60,068	14,159	45,909
2001	33,289	10,638	22,651

2005 국가정보보호백서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 행위자 중 10대 및 20대의 비중이 가장 높고 직업별로는 무직에 이어 학생신분인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3] 이러한 원인은 20대의 인터

넷 사용 시간자체의 증가와 기술적 측면의 높은 수용도 때문 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현실세계에서 학교나 가정 등에서 상대적으로 권위에 눌렸던 이들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활동할 수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14]

또한 인터넷의 사용에 대한 법률적 지식의 미비 또는 범죄라는 인식의 결여로 인해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케이티(KT)문화재단이 2005년 실시한 청소년(1500명), 학부모(15000명)의 사이버 범죄 인식 실태조사 결과 사이버 피해 노출 수준의 심각성에 비해, 이를 범죄로 인식하는 비율은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저작권 침해와 사이버 거래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비율이 각각 84.1%, 59.4%로 나타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피해 사례를 보이고 있는 스팸메일과 모바일 메일을 범죄로 여기지 않는 비율은 청소년 26.6%, 37.6%, 학부모 20.6%, 28.1%에 달했다. 한편, 사이버 범죄피해 경험은 '바이러스', '스팸메일', '모바일 메일' 피해가 가장 많이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15]

이민식(2000)은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에서 전국 7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 중에서 41.9%가 대학생 이었다.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피해를 분석한 결과를 순서대로 제시하면, 스팸메일(29.3%) 인신공격·언어폭력·협박(25.4%), 바이러스(20.3%), 사이버성희롱(11.9%), 전자상거래관련 피해(4.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른 유형별 피해의 분포를 조사한 결과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집단부터 사이버범죄의 피해율이 상회하였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규정에 있어서는 '사생활유포'의 피해를 입은 경우는 95%가 명백한 범죄라고 인식한 반면, 스팸메일은 62.4%, 인신공격·언어폭력·협박은 70% 정도만이 범죄행위로 규정하였다.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입고도 범죄로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와 인식의 불일치 현상은 사이버 범죄의 사회적 대응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스럽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과 방법

본 조사는 광주광역시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07년 9월 3일부터 13일까지 실시했다. 총 3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전량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예비조사에서 응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을 수정하였고 중독성을 측정하는 항목들을 일부 재 작성하였다. 실제조사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조사원을 통해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450부를 배부하여 380부를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하게 답변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376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크게 4부로 구성된다. 1부는 사이버 범죄피해 및 인식분야, 2부는 인터넷 중독 분야, 3부는 인터넷 사용실태 분야, 4부는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분야이다. 전체 문항은 93개 문항이었다.

인터넷 중독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개발한 ‘인터넷중독자가진단검사(k-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모형은 인터넷 중독을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측정항목을 다음과 같이 7개 하위 요인별 40문항으로 구성하고 있다. 1요인 일상생활장애(9문항), 2요인 현실구분장애(3문항), 3요인 긍정적 기대(6문항), 4요인 금단(6문항), 5요인,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5문항), 6요인 일탈행동(6문항), 7요인 내성(5문항)이다. 각 문항별 인터넷 중독성의 판별기준은 항상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항상 그렇다 4점으로 채점하여 총점이 108점 이상인 경우와 요인별로 1요인(일상생활장애) 26점 이상, 4요인(금단) 18점 이상, 7요인(내성) 17점 이상인 경우 고위험사용자군으로 분류된다.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총점이 95-107점 내에 있는 경우로서 1요인(일상생활장애) 23점 이상, 4요인(금단) 16점 이상, 7요인(내성) 15점 이상에 해당한다. 그 이하의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적 사용자군으로 분류하게 된다. 인터넷 중독성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크론바흐(Cronbach) 알파계수가 .958로 높게 나타났다.

사이버 범죄피해는 전자상거래, 사이버 성희롱, 명예훼손 등 10가지 범죄유형을 선정하였다. ‘없다’를 1점으로 ‘3회 이상’을 4점으로 측정하였다. 사이버 범죄의 인식은 선행연구 등에서 사이버범죄의 인식정도가 낮은 행위 9가지를 선정하여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요인은 저작권침해(엠펙스리 무단다운, 영화무단다운, 프로그램 무단다운)에 대한 불법성 인식, 불법한 인터넷 활동(자살사이트 운영, 도박사이트의 도박행위, 음란물게시)의 불법성 인식, 기타(사이버머니 현금거래, 스팸메일, 타인비방게제)였다. 1은 ‘매우 정당한 행위’이고 4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사이버 범죄인식에 대한 항목별 크론바흐(Cronbach) 알파계수가 .864였다.

인터넷 사용실태는 사용장소, 사용목적, 온라인 게임 활동 등에 대해 7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처리는 SPSS/WIN 12.0으로 통계 처리하였고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T-검정,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의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조사대상자 376명 가운데 남학생이 41.5%, 여학생은 58.5%를 나타냈다. 연령은 19-21세가 전체 73.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인터넷 사용 장소는 집 또는 기숙사의 경우가 61.4%가 가장 많았고 PC방도 29.4%로 나타났다. 1일 인터넷 사용시간은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장 많은 29%의 학생들은 하루 1-2시간 정도 인터넷을 사용하며, 21.2%는 2-3시간, 16%는 30분-1시간을 사용하는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376)

항목	구분	N(%)
성별	남	156(41.5)
	여	220(58.5)
연령	19-21	275(73.1)
	22-24	79(21.0)
	25-27	12(3.2)
	28 이상	10(2.7)
인터넷사용 장소	집/기숙사	231(61.4)
PC방	109(29.4)	
학교	20(5.3)	
기타	12(4.3)	

항목/구분	N(%)
(1일 인터넷 사용시간)	59(15.7)
거의 안함	
30분 - 1시간	60(16.0)
1시간 - 2시간	109(29.0)
2시간 - 3시간	80(21.2)
3시간 - 5시간	47(12.5)

조사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목적을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로 확인하였다. 총 11가지의 인터넷 활동유형을 제시하고 주로 사용하는 목적을 순위별로 3개씩 강제선택하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순위의 경우 가장 정보검색(34.3%), 게임(18.4%), 미니홈피(14.1%), 메신저 채팅(12.5%)순으로 응답하였다. 2순위는 이었고 다음으로 게임, 미니홈피, 메신저·채팅, 영화/MP3/동영상/사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는 정보검색(15.7%), 게임(14.6%), 미니홈피(14.4%), 메신저/채팅(14.1%), 쇼핑(11.7%)순으로 응답하였다. 3순위는 정보검색(18.9%), 게임(16.0%), 미니홈피(15.7%), 메신저/채팅(15.4%), 영화/MP3/동영상/사진 등(10.1%)의 순서로 응답되었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인터넷활동현황

1순위 빈도(%)	
정보검색	129(34.3)
게임	69(18.4)
미니홈피	53(14.1)
메신저/채팅	47(12.5)
영화/MP3/동영상/사진 등	28(7.5)
쇼핑	14(3.7)
교육/학습	12(3.2)
E-메일	12(3.2)
카페/블로그 등	10(2.7)
성인물검색	2(0.5)
합계	376(100)

2순위 빈도(%)	3순위 빈도(%)
59(15.7)	71(18.9)
55(14.6)	60(16.0)
54(14.4)	59(15.7)
53(14.1)	58(15.4)
51(13.6)	38(10.1)
44(11.7)	36(9.6)
28(7.5)	23(6.1)
13(3.5)	16(4.3)
8(2.1)	4(1.1)
7(1.9)	3(0.8)
376(99)	368(97.9)

2. 인터넷 중독 정도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인터넷 중독 척도는 측정점수의 합에 따라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사용자군으로 구분된다. 고위험사용자군은 전체 문항의 점수의 합이 108점 이상인 경우와 1요인(일상생활장애) 26점 이상, 4요인(금단) 18점 이상, 7요인(내성) 17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조사대상자 중에서 108점 이상은 15명, 1요인(일상생활장애)이 26점 이상인 경우 43명, 4요인(금단)이 18점 이상인 경우 9명, 7요인(내성) 17점 이상인 경우 20명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하면 조사대상자 중에서 최대 43명 정도가 고위험사용자군 즉, 강한 중독 증세를 보인다고 하겠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수준

구 분	기준	인원수(%)
고위험군 (중독자)	전체 108점 이상	15(4)
	1요인 26점 이상	34(9)
	4요인 18점 이상	9(2.4)
	7요인 17점 이상	20(5.4)
잠재위험군 (중독우려자)	합계 95-107점	26(7.0)
	1요인 23-25점	23(6.2)
	4요인 16-17점	21(5.6)
	7요인 15-16	13(3.5)

또한 잠재적 위험사용자군을 보면 전체 총점 95-107점 사이에 있는 경우가 26명, 1요인(일상생활장애) 23-25점이 23명, 4요인(금단) 16-17점 21명, 7요인(내성) 15-16점, 13명으로 나

타났다. 이 경우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때 26명 정도가 잠재적위험으로 중독이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독성 측정 도구의 기타 하위 요인들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1요인,4요인, 7요인 이외에도 나머지 4개 요인 간에도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중독성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구 분	중독성	생활장애	현실장애	금정기대
중독성	1			
생활장애	.807(**)	1		
현실장애	.721(**)	.478(**)	1	
금정기대	.817(**)	.529(**)	.657(**)	1
가상대인	.730(**)	.481(**)	.474(**)	.533(**)
일탈행동	.847(**)	.571(**)	.620(**)	.575(**)
내성	.839(**)	.594(**)	.494(**)	.591(**)
금단	.863(**)	.571(**)	.638(**)	.777(**)

구 분	가상대인	일탈행동	내성	금단
중독성				
생활장애				
현실장애				
금정기대				
가상대인	1			
일탈행동	.649(**)	1		
내성	.574(**)	.774(**)	1	
금단	.529(**)	.686(**)	.719(**)	1

P<.001

3. 남녀 대학생의 평균적 특성

남·녀대학생간의 인터넷 활동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중독증세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남녀대학생의 인터넷 중독

검정 및 집단변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p
인터넷	68.30	21.895	3.276	.001
중독정도	61.13	19.907		

p<.05

분석결과 t값은 3.276이고 P값이 .001이므로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중독의 정도가 평균적으로 높았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사이버 범죄 피해에 대한 t-검정 결과, 전체 10개의 사이버 범죄유형 중 전자상거래사기, 개인 신용정보도용피해, 사생활유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이버 범죄의 피해 중에서 사이버 성희롱 과 바이러스의 피해의 평균은 여학생이 높았지만 유의확률이 .05이상으로 나타나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표 7] 남녀대학생의 사이버범죄 피해

검정 및 집단변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p	
전자상거래사기	남학생	1.51	.935	3.534	.000
	여학생	1.21	.561		
개인신용정보 도용피해	남학생	1.30	.788	3.084	.002
	여학생	1.10	.397		
사생활유 포	남학생	1.20	.719	2.113	.036
	여학생	1.06	.365		

p<.05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한 t-검정 결과 음란물 게시행위,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도박행위, 사이버머니 불법거래, 해킹에 있어 남·녀간에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 하게 분석되었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4가지 유형의 경우에 모두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범죄인식정도가 높았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위협성을 높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

[표 8] 남녀대학생의 사이버범죄 인식정도

검정 및 집단변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p	
음란물 게시	남학생	2.69	.925	-6.385	.000
	여학생	3.29	.825		
불법 온라인 도박	남학생	3.14	.910	-4.443	.000
	여학생	3.54	.749		
사이버머니 불법거래	남학생	2.89	.913	-6.137	.000
	여학생	3.45	.766		
해킹	남학생	3.29	.762	-2.411	.016
	여학생	3.48	.737		

p<.05

#### 4. 사이버범죄의 인식정도에 따른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집단군과 일반사용자군의 사이버범죄 유형별 인식정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중독자군은 인터넷중독 측정도구를 통해 1요인(일상생활장애)이 26점 이상인 케이스에 해당하는 34명(9%)을 추출하였다.

[표 9] 중독자군과 일반 및 위험군의 사이버범죄 인식의 차이

검정 및 집단변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p	
저작권침해 행위	중독자군	2.60	.806	1.854	.065
	일반 및 위험군	2.35	.825		
불법사이트 이용	중독자군	1.50	.800	1.669	.096
	일반 및 위험군	1.27	.553		
기타범죄	중독자군	3.41	.550	2.113	.036
	일반 및 위험군	3.21	.647		

p<.10

저작권 침해행위, 불법사이트 이용행위, 기타 범죄 모두에서 중독자군의 범죄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 활용시간이 증

가함에 따라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을 많이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사이버범죄 인식정도에 따른 인터넷 중독현상을 예측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중독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중독에 대한 7개 요인을 각각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각각의 요인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로 상관이 높은 독립변인들이 모형에 동시에 고려되어 추정되는 회귀모형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다중공선성은 다중회귀분석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변수의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공차한계(tolerance)의 경우 금단이 .273으로 가장 낮았고 생활지수장애가 .570으로 가장 높았으나 0.1보다 작지는 않아 독립성에 문제가 없어 보였다. 분산팽창지수(VIF)는 금단이 3.662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변수들간 독립적임을 보였다. 고유값은 적을 수록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가장 큰 값이 생활장애지수로 0.106으로 나타났고 상태지수 또한 최대값이 금단으로 16.803이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변수들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다중회귀분석결과 ‘생활장애’와 ‘일탈행동’요인 만이 유의미한 예측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단계적선택법(stepwise)를 통해 다중회귀분석을 재실시 하기로 하였다. 단계적선택법에 따라 진입된 변수는 ‘생활장애’와 ‘일탈행동’으로 나타났다.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이 있으므로 더빈와트슨(Durbin-Watson) 통계량 값은 1.778로 나타났다.

[표 10]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른 사이버범죄인식의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회귀값(B)	표준오차	베타(β)	t-값
생활장애	.050	.009	.334	5.495**
일탈행동	.026	.005	.294	4.841**
상수	3.038			
R <sup>2</sup>	.081			
F값	17.261**			

\*\*p<.01

회귀식은  $y = 3.038 + .050 \times \text{생활장애} + 0.26 \times \text{일탈행동}$  장에 의해 예측된다. 두 개의 독립변수간에는 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베타(β) 값의 절대 비교가 가능하겠다. 따라서 생활장애가 일탈행동에 비하여 사이버범죄의 인식에 보다 큰 영향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V. 요약 및 시사점

본고에서는 대학생의 인터넷 활동, 중독정도, 사이버범죄의 인식 등에 대하여 기술통계분석, t-검정,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남녀대학생간에는 인터넷 중독정도의 평균적 차이가 존재하는데, 남학생의 중독성이 여학생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또한 사이버 범죄 피해의 경우는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신용정보 도용피해', '사생활 유포'에 있어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은 평균을 유의미한 수준에서 나타내고 있었다. 사이버 범죄의 인식에 있어서는 '음란물 게시행위',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도박행위', '사이버머니 불법거래', '해킹'의 경우 남·녀 간에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4개 항목 모두에서 여학생의 범죄인식이 높았다.

둘째, 인터넷 중독집단이 일반사용 집단에 비해 사이버 범죄를 평균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터넷 활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을 많이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인터넷 중독현상에 따른 사이버 범죄의 인식을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생활장애와 관련된 중독성과 일탈행동적 중독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범죄의 인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중독현상들은 예측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중독예방교육은 남학생에게 보다 효과적이며, 사이버 범죄의 피해예방도 남학생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이해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인터넷 일반 사용자의 경우 중독자에 비해 오히려 사이버 범죄의 인식정도가 낮은 점과 중독(일상생활장애, 일탈행동)경향에 따라 사이버 범죄인식을 높이 하는 것은 일반사용자의 사이버 범죄 피해 및 가해의 위험이 중독자 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중독자가 사이버 범죄자로 전이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사회적으로 인터넷 중독자 치료 및 예방책에 집중하여 왔다. 향후 일반적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범죄 인식제고 홍보 및 교육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 ■ 참 고 문 헌 ■

- [1] 류인균, 하지현, 양은주, 김영미, 장창국, 우종인, 인터넷 중독의 정신병리, 정신병리학 제9권 제1호 16-26, 2000, p.16.
- [2] Ivan Goldberg(1996.7). Psychology of the Internet Mailing List, John Suler.Internet Addiction Disorder SupportGroup. [Http://www.rider.edu/users/suler/psycyber/cybaddict.html](http://www.rider.edu/users/suler/psycyber/cybaddict.html);
- [3]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중독가치단검사(K-척도)와 예방교육프로그램, p.3, 2004.
- [4] Young, K. (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Poster presentation at the 104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in Toronto, Canada, August 16, 1996.
- [5] Egger, O. (1996). Internet and Addiction. <http://www.ifap.bepr.ethz.ch/~egger/ibq/iddres.htm>
- [6] The Stanford Institute for the Quantitative Study of Society(2000). <http://www.stanford.edu/group/siqss>
- [7] 양돈규,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경향에 따른 대인관계활동 및 만족도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3호 2003, 481-500.
- [8] 서승연, 이영호,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몰두 성향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26권 2호, 2007, 391-405.
- [9] 김진희, 김경신,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 모형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1호, 2006, 235-268.
- [10] 송명준, 권정혜, 대학생 인터넷 중독 현황 및 인터넷 중독이 대 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임상심리학회회계학술대회논문집, 2000, 78-93.
- [11] 박윤해, 컴퓨터범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16집, 2006, 231-258.
- [12]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홈페이지 <http://www.netan.go.kr/index.jsp>
- [13] 국가정보원·정보통신부, 2005 국가정보보호백서.
- [14] 장종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사회·문화적 논의, 정보통신정책 제18권 7호, 2006, 1-26.
- [15] KT문화재단, 청소년, 학부모 사이버 범죄 인식 실태조사, 2005.